임시 · 일용직 비중 크게 늘어, 체계적 인력 관리 '우려'

- 건설업 고용 구조 변화, 산업 차원의 훈련 · 재교육 · 경력 관리 대책 서둘러야 -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 투자 규모에 따라 변화한다. 1998년부터 극심한 감소 추세를 지속해 온 건설 투자 규모는 2001년부터 증가 추세로 반전되어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는 각각 10.7%와 10.1%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올 6월 현재 건설업 전체 취업자 수는 179만 8,000명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0.2%가 증가하였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연중 7.4%와 3월의 7.7%보다 상승한 8.1%를 기록하여 건설 경기의 상대적인 회복세를 반영하였다. 특히,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해 오는 과정에서 건설업의 고용 구조는 직종별 및 지위별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직 취업자 증가세, 기능직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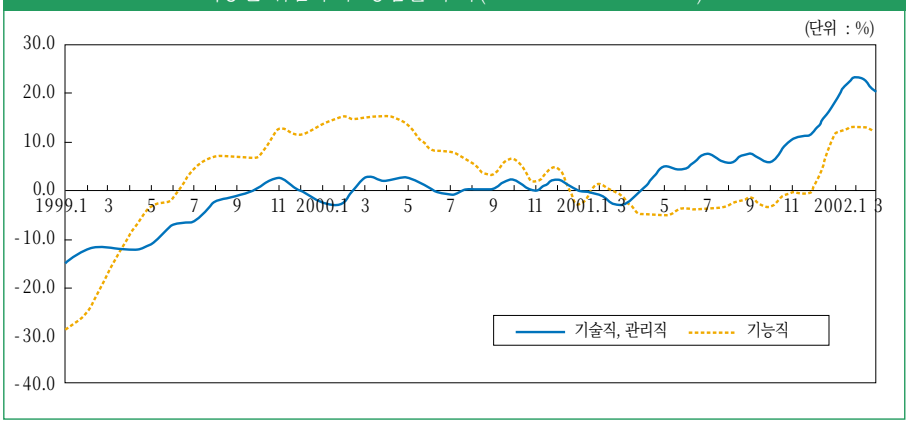
2001년부터 관리직을 포함한 기술직 취업자의 비중은 증가 추세를 나타낸 반면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 또는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올 1/4분기 전체 건설 취업자 가운데 기술직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6.6%로 2000년과 200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기술직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되어 올 3월 현재 26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3% 증가하였다. 반면에 2001년 기능직 취업자의 비중은 2000년에 비해 1.5% 포인트 낮아졌으며, 올 1/4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기술직 취업자의 증가 추세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통계청의 경제 활동 인구 월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직 취업자 수는 1999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1년 2/4분기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기능직 취업자 수는 19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말에 이르기까지 전년도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1년 중에는 소폭 하락세, 2002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는 주기적 등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술직 및 기능직 취업자 수의 상이한 변화 양상의 격차가 비록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외환 위기 이후 건설 경기 변동에 따른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외환 위기 직후 공사 잔량에 의존하여 인력 수요의 점진적 감소세를 유지해 온 시기에는 기능직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였다. 경기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의 변화가 기술직보다는 기능직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1999년 하반기 이후 기능직 취업자 수의 증가세는 1998년 중 급격한 감소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이며, 2000년 말까지 건설 경기의 침체가 심화된 과정에서는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는 거의 정체되어 왔고 기능직 취업자 수의 증가세는 둔화되다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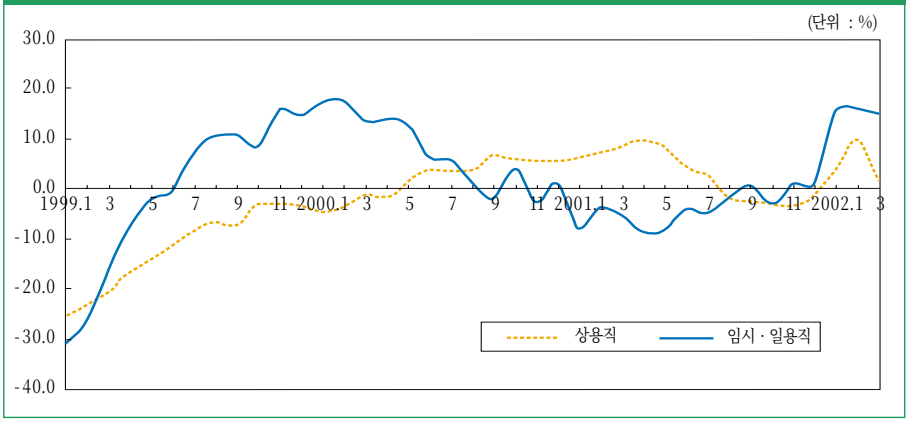
2001년부터 건설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시기에 기술직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의 상반된 현상에 기인한다. 즉, 기술

직종별 취업자 수 증감률 추이(1999. 1 ~ 2002. 3)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건설업 취업자 지위별 증감률 추이(1999. 1 ~ 2002. 3)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력은 최근 5년 간 건설 관련 학과를 졸업한 신규 진입 인력이 적체되어 공급 과잉 현상을 나타낸 반면, 기능 인력의 경우 현장의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비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건설업 기피 현상으로 인력의 절대적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최근 국민 경제의 산업 구조 고도화와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기능 인력의 공급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단순 노동력 투입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은 불가피할 것이다.

임시 ·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심화

취업자의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된다. 임시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건설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므로 근로자의 임시직과 일용직 지위는 동일한 고용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002년 1/4분기 임시 · 일용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상용직 취업자 수가 4.8% 증가한 것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증가율이다.

올 3월 현재 임시 · 일용직 취업자 수는 92만명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종사자를 제외한 피고용 근로자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동절기를 제외한 3 11월 사이 취업자 수의 비중이 1998년에는 평균 71%이었으나 2000년에는 7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에 다시 73%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건설 투자 증가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기능 인력의 공급 부족에 따른 상대적 현상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1년 하반기부터 임시 · 일용직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며, 기술직 취업자 수의 높은 증가율과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고용 구조의 변화를 반증한다. 임시 · 일용직 취업자의 대부분은 기능 인력이지만 기술 인력도 포함되어 있다. 즉, 한편으로는 기술 인력의 고용 지위가 상용직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용직으로 고용되었던 기능 인력이 사업 및 인력 구조 조정 과정에서 임시 · 일용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낸다. 건설업 고용 형태가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시 · 일용직 취업자 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기능 인력에 대한 고용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술 인력에 대한 임시 계약직의 고용 방식이 확산될 것이므로 이러한 추세의 고용 구조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으로서는 체계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어려우므로 산업 차원에서 인력 양성 및 훈련, 재교육, 경력 개발과 관리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탄력적인 고용 체계 마련해야

고용 구조는 인적 자원 활용 방식을 반영한다. 외환 위기 이후 건설업 고용 구조는 보다 기술 집약적이고 탄력적인 인적 자원 활용 방식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대외적으로 노동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대내적으로는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정 관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해 온 여건에서 비롯되었다.

향후 보다 기술 집약적인 건설 생산 방식에 대한 요구는 더욱 확산될 것이나, 현행 인력 공급 체계는 탄력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노동력의 공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요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 구조는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고용 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급 여건을 변화시킨다.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수급 여건 변화가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고용 체계에 전달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수급 불균형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인력 공급 풀(pool)에 대한 정보화가 시급하며, 기업의 노동 수요 성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공급 풀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의 기능을 산업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CJ

김태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thkim@cerik.re.kr